

발표일 : 2014년 8월 29일



서해상은 파고가 대체로 낮겠으며, 동해상을 비롯한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은 파고가 약간 높겠음.

해양기상

-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서해상은 파고가 낮겠으며, 동해상은 동풍기류의 영향으로 파고가 약간 높겠음.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은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파고가 약간 높겠음.

※ 물결이 낮음(1.0m 미만), 약간 높음(1.0~2.0m 미만), 높음(2.0~3.0m 미만), 매우 높음(3.0m 이상)

- 9월 9일 망 이후에, 서해의 인천에서 9월 10일에 965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의 완도에서 9월 9일에 410cm, 동해의 포항은 9월 9일에 44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해양안전

- 성어기 출어 확대에 따른 해상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 빈발 주의
- 태풍 예보시, 신속하게 안전한 항포구 또는 해역으로 피항
- 추석 연휴 등 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여객 정원초과 승선 방지 등 안전관리 철저 필요

어업기상

- 9월의 수온은 동해·서해·남해가 평년보다 0.5~1.5℃ 범위의 낮은 수온 분포를 보이겠음.
 - 예상 수온 : 동해: 18~24℃ , 남해 : 20~25℃, 서해 : 19~25℃
- 8월에 전남 고흥과 경남해역에 유독성 적조생물(코클로디니움)이 출현 하였음. 9월에 일조량 증가시 당분간 고밀도 적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되고, 바람 및 해류의 변화에 따라 주변해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음.

자료협조 : 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최근 5년간('09~'13년) 9월 파고 관측값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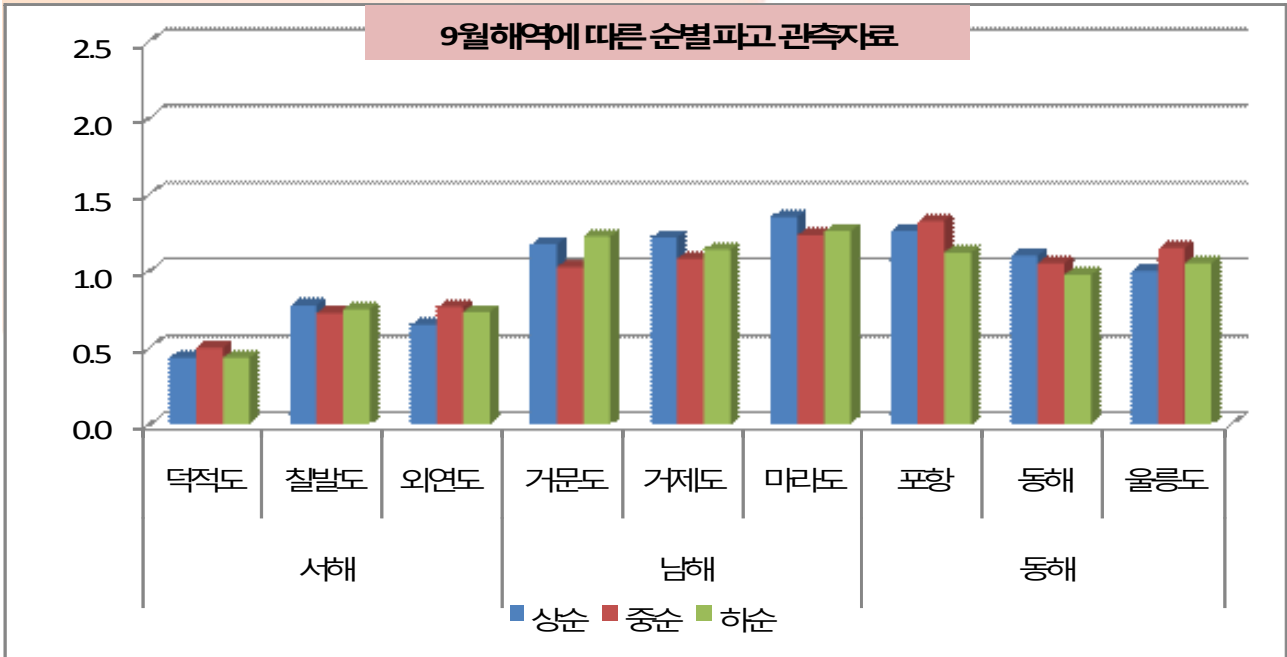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5년간(2009 ~ 2013년) 9월 순별 파고 관측값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해역에 따른 9월 해양기상부이의 파고관측 자료를 살펴보면, 남해, 동해는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서해는 낮았음. 순별로 살펴보면, 서해는 상순, 중순, 하순에 모두 대체로 낮았으며, 남해와 동해는 모두 대체로 약간 높았음. 9월에 파고가 가장 높았던 곳은 마라도로 1.4m(상순)였음.(그림1)

※ 울릉도 부이 자료는 2012년도 신설로 인하여 해당년도부터 추가함.

▶ 최근 5년 및 작년 풍랑특보일수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9월의 풍랑특보 발표 일수를 보면 중순에 많고, 상순과 중순은 비슷하였음. 해역별로는 남해동부앞바다와 먼바다, 동해남부앞바다와 먼바다에서 빈도가 높은 편임.

2013년 9월의 풍랑특보일수는 최근 5년(2009년~2013년)에 비해 상순과 하순에는 비슷하였고, 중순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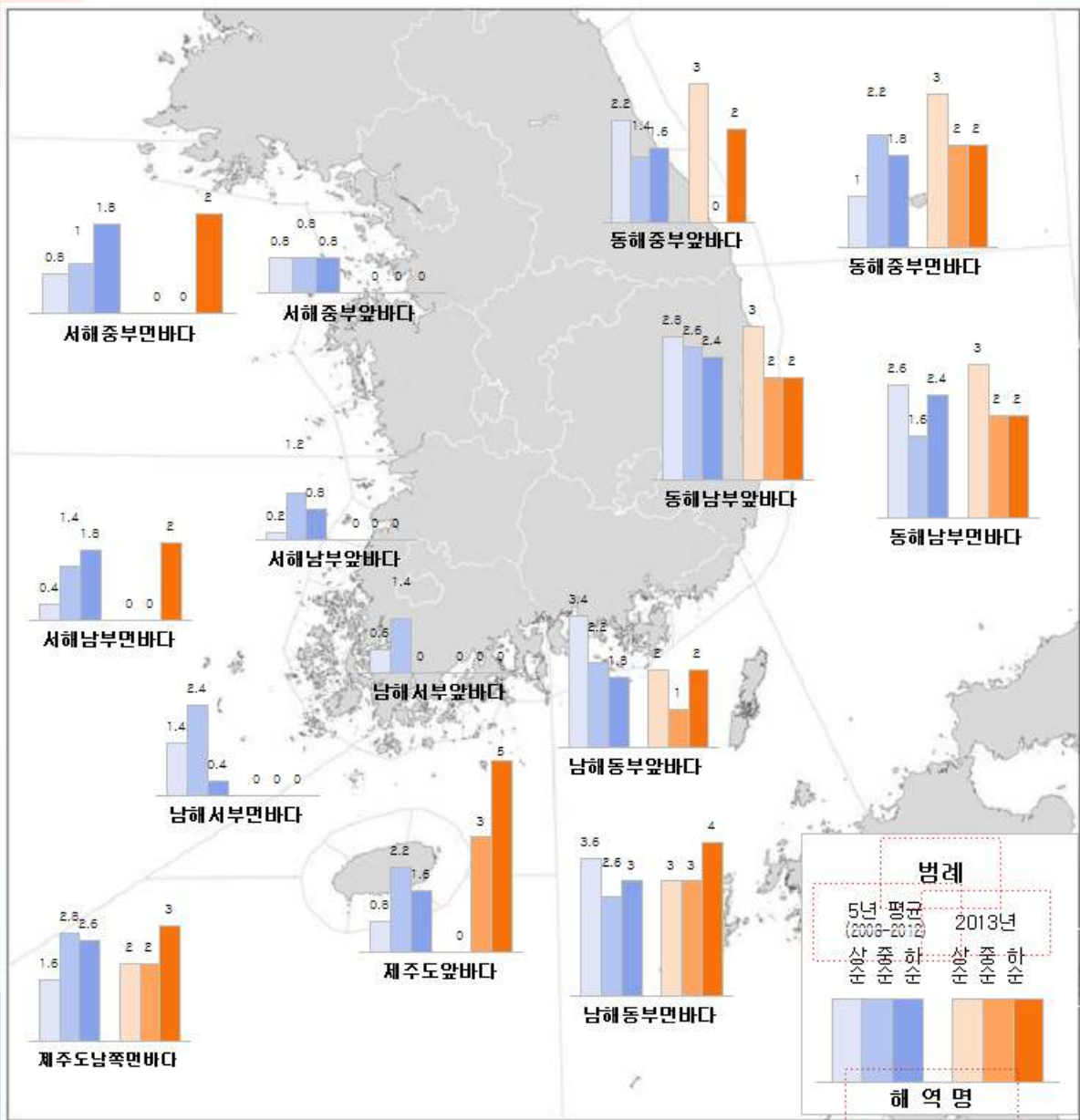


그림 2. 최근 5년(2009~2013년) 및 2013년 9월의 풍랑특보일수(상순, 중순, 하순)

▶ 해무(바다 안개)와 안전 항해

“아침에 안개가 끼면 맑다”

“가을 안개에는 풍년이 든다”

안개와 관련된 속담을 들으면 다음과 같은 의문을 한번 짚 해볼 수 있다.

안개가 끼면 날씨가 안 좋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풍년이 들죠?”



안개와 관련된 위 속담은 기상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안개는 날씨가 좋은 날에 발생한다. 가을철에 안개가 끼는 날은 일사량이 많아져 벼의 결실이 잘되어 풍년이 든다는 뜻으로 풀이 될 수 있다.

▣ 안개와 해무



안개와 해무의 차이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되면 미세한 물방울이 생기게 된다. 이 물방울이 하늘 높이 떠올라 있는 경우에는 ‘구름’이라 부르고, 지면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개(fog)라고 하고, 안개가 바다에서 발생하면 해무(sea fog)라고 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구름과 안개, 해무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안개 입자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안개라 하고, 빙정(얼음 알갱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빙(ice fog)이라고 한다.

안개 속에서는 시야가 나빠진다. 수평 시야, 즉 시정이 1km이하의 경우를 안개라하고, 시정이 1 km 이상인 경우에는 박무(mist)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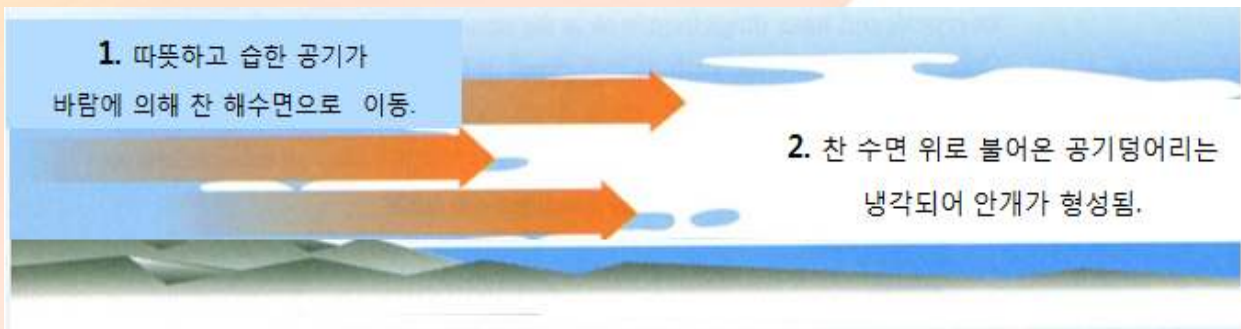


해무의 발생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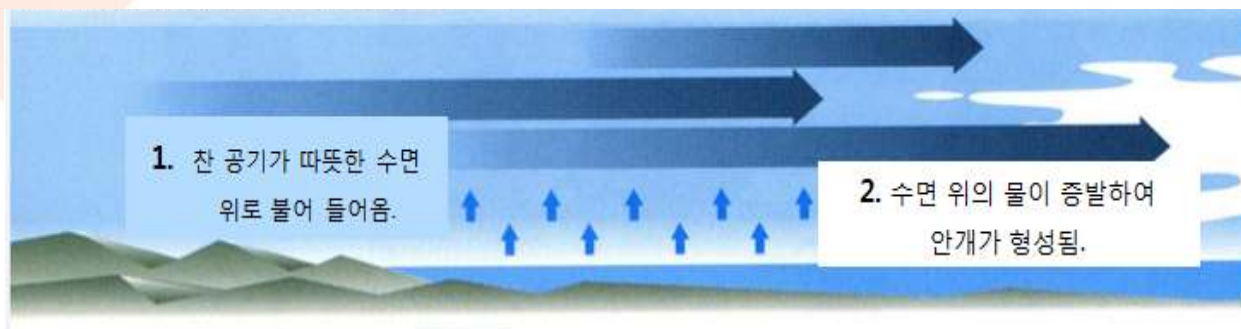
해무(sea fog)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안개로

- 1) 이류해무 : 따뜻하고 습한 공기 덩어리가 찬 해수면 위로 이동할 때 그 아래에서 냉각된 공기로 인해 발생
- 2) 증기해무 : 이류해무와 반대로 차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수면 위를 이동할 때 급격한 증발에 의해 발생

◆ 이류 해무 발생 과정



◆ 증기 해무 발생 과정



▣ 해무와 안전 항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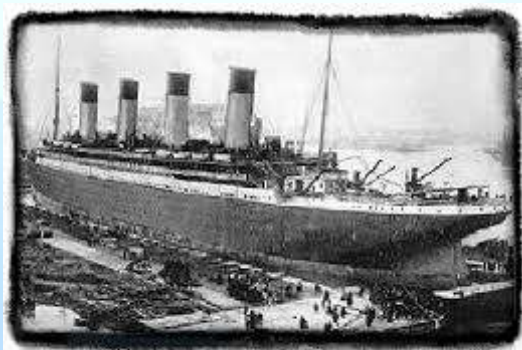
< 타이타닉호 침몰은 '바다 안개'가 촉발 >

안개에 따른 해상사고의 대표적인 예는 영화로도 잘 알려진 '타이타닉호 사고'이다. 건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던 4만 6328t의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스댐프턴항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해 항해 중이었다.

항해 중 근접해 있었던 6000t의 화물선으로부터 그곳의 상태가 유빙(流氷)으로 항해가 막혀 있다는 통신이 입수됐으나, 당시 이 해역에는 따뜻한 공기가 밀려들어 짙은 해무가 끼어 있었다.

4월 14일 오후 11시 40분경, 타이타닉호는 짙은 해무로 인해 오른쪽 뱃머리가 빙산과 충돌했고, 충돌한지 3시간 후인 15일 오전 2시 20분 거대한 타이타닉호는 뉴펀들랜드 바다에 침몰하고 말았다.

승객과 승무원 2208명 중 151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지점은 북대서양 뉴펀들랜드로부터 남서쪽으로 640km 떨어진 바다 위였다.



바다에서 선박 항해자에게는 풍량이 높아지거나 안개로 시야가 제한될 때 안전항해에 가장 큰 곤란을 겪는데, 내해 또는 연안바다에서의 강풍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장을 덜 받는 편이고, 제일 곤란한 상태는 안개 등으로 시야가 제한될 때이다. 해무는 폭풍우나 태풍과는 다르게 소리 없이 찾아와서 큰 피해를 일으키는 일기현상의 하나여서, 해상에서 짙은 해무가 발생하면 시계 불량으로 다른 배나 빙산과의 충돌, 암초에 좌초되는 등 큰 해상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

해상사고의 약 60%가 안개나 강수 등의 위험기상에 의한 시정 악화에 의한 것이므로 해무의 형성 조건과 특성을 잘 파악해 그 날의 안개를 현장에서 예상하는 것이 가장 좋다.

최근에는 레이더를 설치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접 눈으로 보고 항해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고 있다. 해무로 인한 충돌, 좌초 사고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으므로, 해무로 인한 바다에서의 시계 불량일 경우에는 견시(見示)를 강화하거나 측심을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항해 예정 수역에 대한 시야의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만큼 시야 제한성의 정도, 선박의 감항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해무시 운항 수칙

바다에서 짙은 안개로 인해 시정이 극도로 나쁜 경우에는 닻을 내리고 선박의 크기(규모)에 따라 약정된 국제 표준 신호음을 계속하여 발신하고, 안개가 걷힐 때까지 운항을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피하게 계속 운항하여야 할 경우에는 선박의 모든 등(라이트)을 켜고, 경적 또는 사이렌과 같은 음향 신호를 울려, 주위 선박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전방 경계 및 레이더를 이용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해양기상예보에 안개가 예보되어 있을 경우 또는 안개 발생 시 주변 등대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정박 중인 선박은 출항을 삼가야 하고, 연안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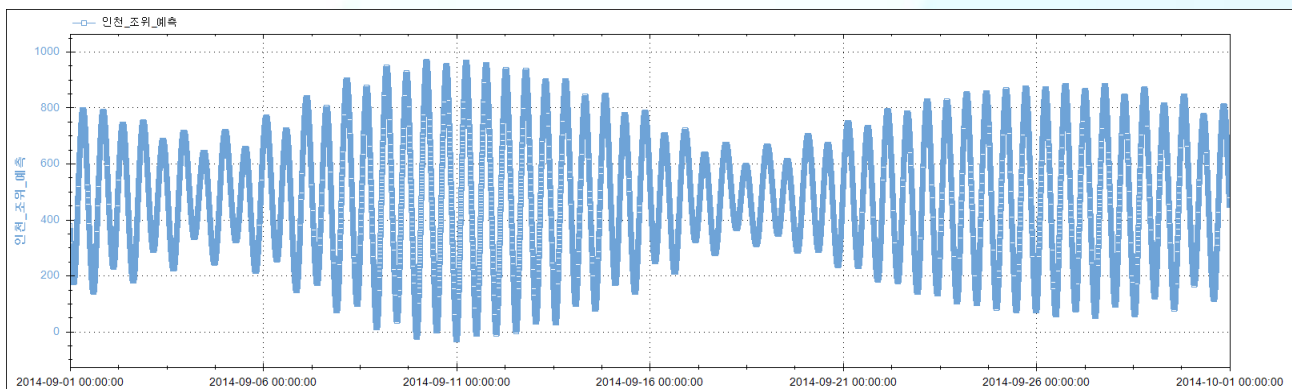
◆ 해상 안개 정보 ◆

기상청에서는 육상과 해상에서 안개 발생이 예상될 때, 오늘, 내일 일기예보에 안개 정보를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기상청 홈페이지에는 지역 또는 해당해역 날씨 란에 날씨와 함께 안개를 표기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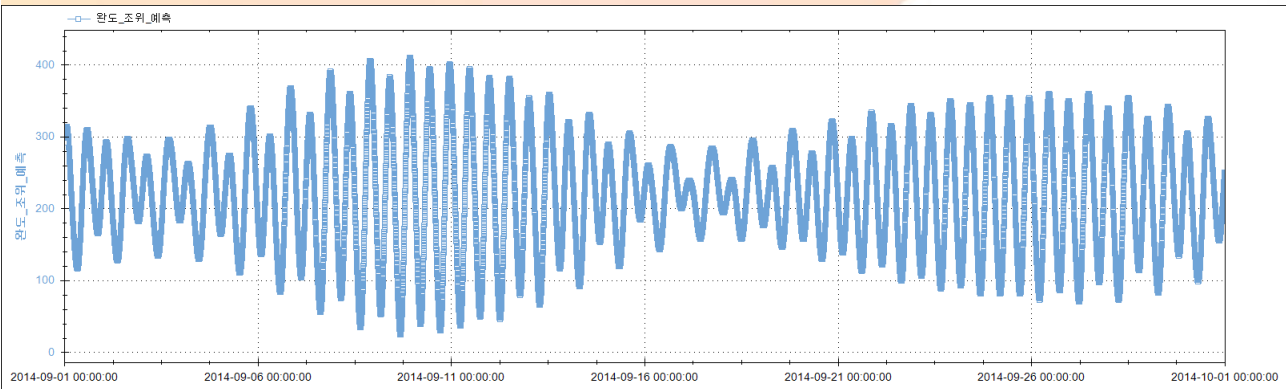
▶ 2014년 9월 조석 예보

9월 9일 망 이후에, 서해의 인천에서 9월 10일에 965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의 완도에서 9월 9일에 410 cm, 동해의 포항은 9월 9일에 44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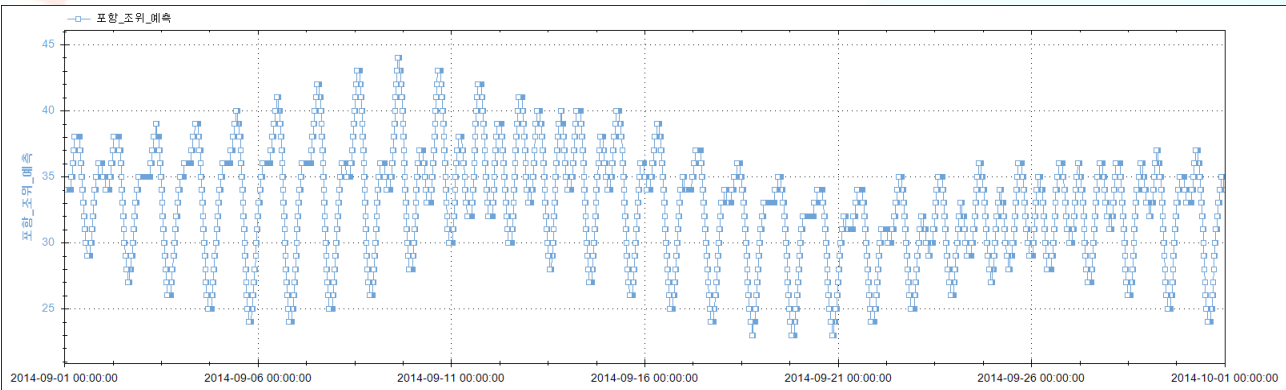
해역	관측소	대조기(망 9.9)		대조기(삭 9.24)	
		고극조위(cm)	발생시각	고극조위(cm)	발생시각
서해	인 천	965	09.10 05:26	879	09.26 18:04
	안 흥	723	09.10 04:23	660	09.27 17:37
	군산외항	754	09.10 03:42	687	09.27 16:57
	목 포	508	09.10 02:49	449	09.27 16:12
남해	완 도	410	09.09 22:27	361	09.26 11:05
	마 산	208	09.09 21:19	182	09.24 20:55
	부 산	156	09.09 20:46	142	09.25 20:59
	제 주	307	09.09 23:02	272	09.26 11:42
동해	포 항	44	09.09 15:24	37	09.28 05:33
	울 릉 도	39	09.09 14:28	34	09.24 14:47
	속 초	50	09.09 14:48	42	09.24 15:04



<2014년 9월 인천 조석예보>



<2014년 9월 완도 조석예보>



<2014년 9월 포항 조석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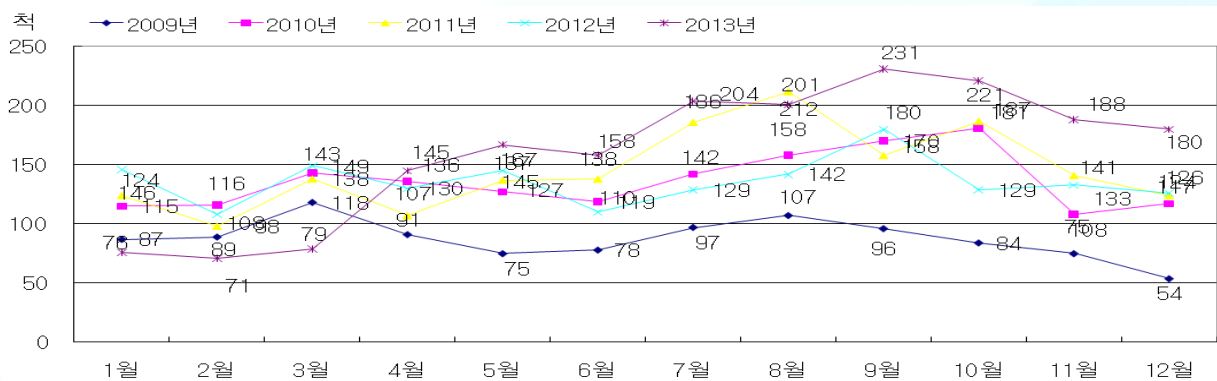
해난사고 현황

★ 최근 5년간('09.1.1~'13.12.31) 현황

■ 선박사고(선박의 충돌, 좌초, 화재, 침수, 전복 등으로 인한 피해)

- 총 7,982척(49,817명)의 선박사고 발생
- 구조현황 : 선박 7,708척(96.6%), 선원 49,330명(99.0%)
- 피해현황 : 재산피해[선박 273척(3.4%)], 인명피해[487명(1.0%) : 사망(285명), 실종(202명)]

구분	발생		구조		구조불능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척	명	사망	실종
계	7,982	49,817	7,709	49,330	273	487	285	202
2013년	1,052	7,963	1,015	7,896	37	67	48	19
2012년	1,632	11,302	1,570	11,217	62	85	64	21
2011년	1,750	9,503	1,680	9,418	70	85	38	47
2010년	1,627	9,997	1,569	9,844	58	153	85	68
2009년	1,921	11,052	1,875	10,955	46	97	50	47



■ 해역별 최근 5년간 9월 중 사고발생 현황(제공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 해역별 : 서해영해 > 남해영해 > 국내항만 등의 순으로 발생
- ◆ 서해영해 : 기관손상, 충돌, 좌초 등의 순으로 사고 발생
- ◆ 남해영해 : 충돌, 기관손상, 좌초 등의 순으로 사고 발생



◆ 성어기 출어 확대에 따른 해상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 빈발 주의

- 9월은 성어기를 맞아 어선의 출어 확대에 따라 어선사고가 급증하는 시기로, 어선은 출어 전 선체, 기관, 어구 등의 점검과 기상상황 파악 철저

◆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안전대책 강구

- 좌초, 침수, 화재로 인한 귀중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어 전 선체·항해 장비 점검 철저 및 신체 피로를 무시한 무리한 항해 금지

▶ 해양사고 빈발 시기(835척, 연중 가장 많음), 안전 항해 및 조업

해양사고는 연중 가장 많은 835척에서 발생하고, 선종별로는 어선에서 564척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행락철 낚시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 사고도 69척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

인명피해는 16명(사망 14명, 실종 2명)으로 연중 3번째 적게 발생하였으나 다수 사고로 물적 피해는 빈번하게 발생

▶ 서해권 해역에서 해양사고 빈발

해양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해역으로는 태안 113척, 인천 102척 등으로 서해권 해역에서 해양사고 많이 발생

▶ 추석 연휴 등 선박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증가 예상

도서지역 이동 인구 증가에 따라 여객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선고 발생 우려
운항관리실, 해상교통관제센터(VIS) 연계 운항상황 모니터링

여객 정원초과 승선 방지 등 안전관리 철저 필요



▶ 성어기 출어 확대에 따른 해상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 빈발 주의

9월은 성어기를 맞아 어선의 출어 확대에 따라 어선사고가 급증하는 시기로, 어선은 출어 전 선체, 기관, 어구 등의 점검과 기상상황 파악 철저

연안 통항선박은 어선 출몰 급증이 예상되므로 항해당직을 강화하고, 어선 밀집지역에서는 견시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각별한 주의 필요

▶ 태풍 예보시, 신속하게 안전한 항포구 또는 해역으로 피항

9월까지의 태풍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고, 특히 9월 태풍은 여름 태풍보다 더 큰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계류설비, 배수설비에 대한 점검 철저

※ 태풍 영향(최근 10년간 26개) : 8월 11회(42%), 9월 7회(27%), 9월 6회(23%)

조업·항해중인 어선은 기상청의 태풍 정보 및 수협이 대피방송에 따라 신속하게 안전한 항구 또는 해역으로 피항

▶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안전대책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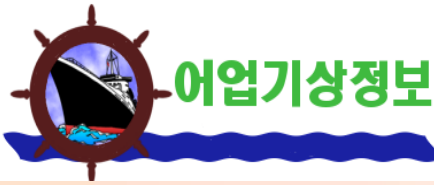
좌초, 침수, 화재로 인한 귀중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어 전 선체·항해장비 점검 철저 및 신체 피로를 무시한 무리한 항해 금지

어선 대부분이 FRP 재질로 건조되어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쉽게 발생하고 화재 진화도 거의 불가능하므로 어선은 특히 화기 취급에 주의

▶ 1인 조업선, 출어시 자체 안전대책 강구

선장 1명이 승선 출어하는 1인 조업선은 해양사고 발생시 인지가 어렵고, 인명피해로 연결되므로 자체 안전대책 마련 후 출항

1인 조업선은 날씨가 덥고 불편하더라도 출항 후에는 구명동의를 반드시 착용하고, 해양긴급신고전화 122 기억



수온 동향

★ 9월의 예상 수온

9월의 수온은 동해·서해·남해가 평년보다 0.5~1.5℃ 범위의 낮은 수온 분포를 보이겠음.

- 동해 : 18~24℃ 분포
- 남해 : 20~25℃ 분포
- 서해 : 19~25℃ 분포

▶ 지난달 수온 분포

8월의 연안수온은 월평균 21.0~25.8℃ 범위로 분포하였음. 동해연안은 21.1~23.1℃, 남해 연안은 21.0~24.7℃, 서해연안은 24.0~25.8℃의 분포를 보였음.

인공위성 자료로 분석된 한반도 주변 해역의 8월 표층 수온분포는 동해 근해역과 서해 근해역은 각각 23~26℃, 23~26℃로 평년보다 3~4℃ 정도의 낮은 수온분포를 보였고, 남해 근해역은 24~27℃로 평년보다 2~3℃ 정도의 낮은 수온분포를 보임.

어장 분포

★ 9월의 어장 분포

9월에 들면 대형선망어업은 연근해의 수온상승과 난류세력의 확장으로 고등어, 전갱이, 갈치, 살오징어 등의 난류성 어종이 제주도 주변해역과 남해 근해역에서 주 어장을 형성하겠으며, 난류를 따라 북상하는 고등어와 살오징어 어군을 대상으로 서해중남부해역에서도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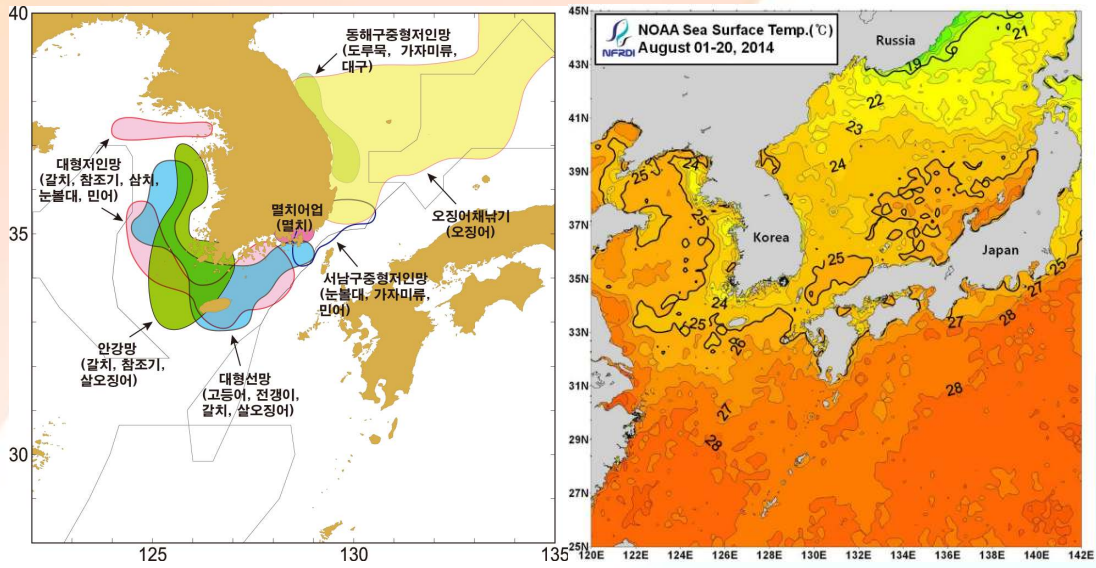


그림 3. 광역 수온 분포(위성) 및 어업별 예상어장도(9월)

고 등 어	난류 세력의 확장으로 수온 상승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 전 해역에서부터 서해중부해역까지 북상회유하여 넓게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서해로 북상하는 어군의 내유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다소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
살오징어	살오징어는 작년 가을과 겨울에 산란된 어군이 수온상승과 함께 북상회유하여 울릉도에서 대화퇴 해역까지 어장이 넓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 또한 난류를 타고 서해로 유입된 어군을 대상으로 서해중남부해역에서도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멸 치	멸치는 권현망어업에 의해 남해도와 거제도 등 남해동부 연안역을 중심으로 동해의 울산~주문진 주변해역에서도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전체적인 어황은 높은 자원밀도로 인해 평년비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
갈 치	갈치는 북상하는 난류세력을 따라 어군의 회유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제주도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서해중남부해역까지 폭넓은 어장이 형성되겠으나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
참 조 기	참조기는 산란을 위해 북상했던 어군의 남하회유가 시작되는 시기로 서해 남부해역과 남해 서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적인 어황은 어군의 내유량이 많지 않아 전년수준을 유지하겠으나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
기 타	명태, 말귀치, 갑오징어 등도 여전히 자원량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저조한 어황이 예상

▶ 지난 달

8월의 주요 어종별 어황을 살펴보면 멸치, 망치고등어는 평년비 순조, 고등어, 전갱이는 평년수준이었으나, 갈치, 살오징어, 참조기는 평년비 부진하였다.

▶ 해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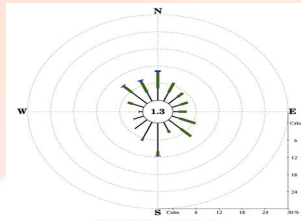
8월에는 약독성의 보름달물해파리가 동·서·남해 전해역에 출현하였음. 강독성의 노무라입깃해파리는 동·서·남해와 제주도 일부해역에서 출현하였으나 전년도와 비교해 출현률이 낮은 편임. 강독성의 커튼원양해파리는 동·남해 일부해역에서 출현하였고, 강독성의 유령해파리는 제주도 연안 한 곳, 맹독성의 라스톤입방해파리는 부산 연안에서 소량 출현하였음.

9월에는 보름달물해파리가 동·서·남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출현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남해 동부해역에서 맹독성의 입방해파리 출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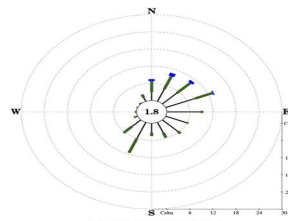
▶ 적조

8월은 유독성 적조생물(코클로디니움)이 전남 고흥과 경남해역에서 출현하여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였음. 8월 26일 현재, 적조경보(경남 통영시 사랑면 수우도 동단~거제시 일운면 지심도), 적조주의보(전남 고흥군 봉래면 염포 종단~경남 통영시 사랑면 수우도 동단), 적조생물 출현주의보(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북단)가 각각 발령되었음. 9월은 일조량 증가시 당분간 고밀도 적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바람 및 해류의 변화에 따라 주변해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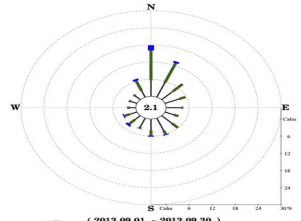
9월의 해상풍(해양기상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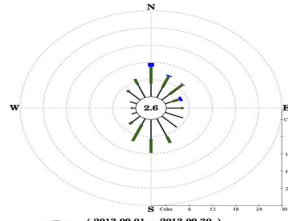
덕적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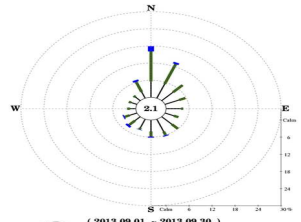
울릉도(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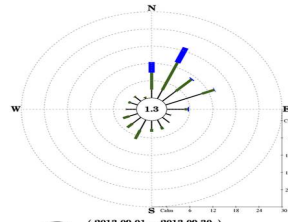
외연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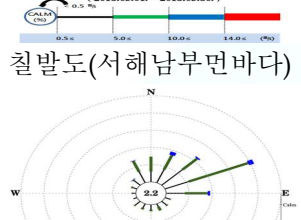
동해(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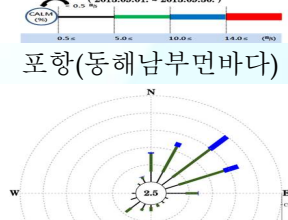
칠발도(서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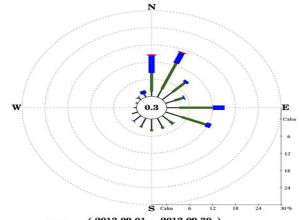
포항(동해남부면바다)



거문도(남해서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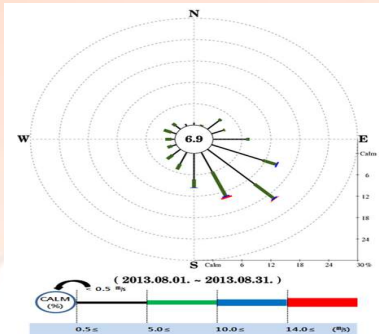
거제도(남해동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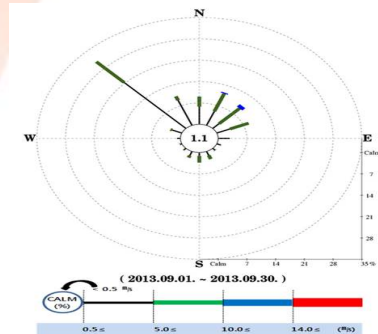
마라도(제주도면바다)

그림 4. 해양부이 관측 해상풍('13년 9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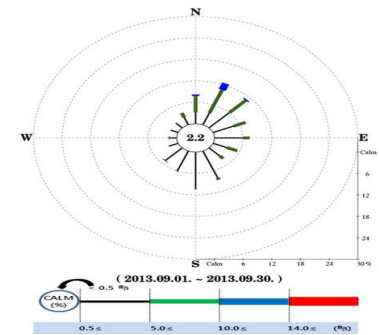
9월의 해상풍(등표기상관측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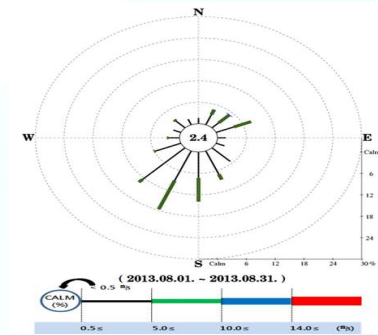
서수도(서해중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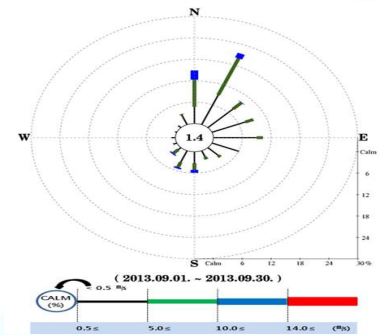
이덕서(동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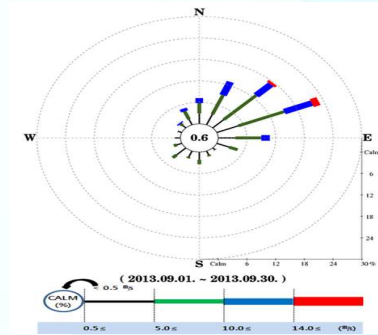
가대암(서해중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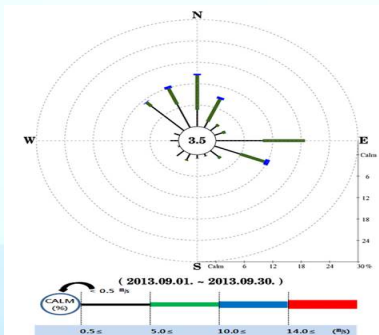
광안(남해동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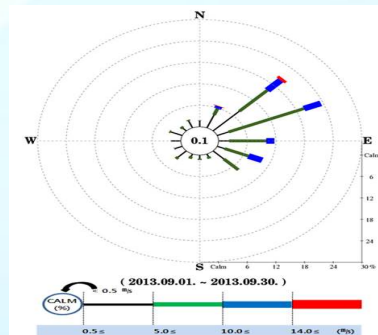
갈매여(서해남부앞바다)



간여암(남해서부앞바다)



갈매여(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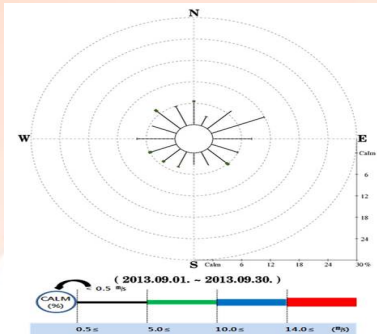


지귀도(제주도 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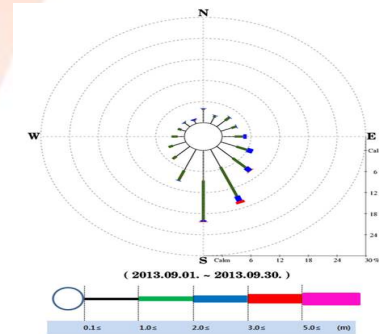
※ 십이동파(서해남부앞바다) 자료 수집률 80% 이하로 통계자료 미생산

그림 11. 등표기상관측장비 관측 해상풍('13년 9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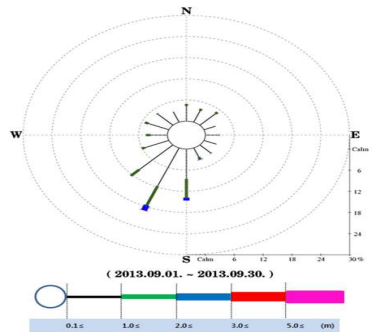
9월의 파향(해양기상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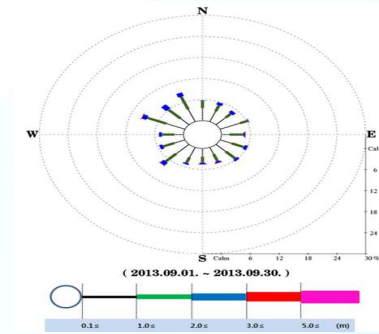
덕적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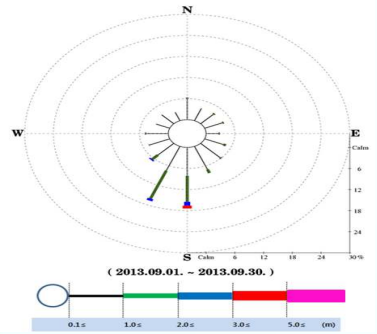
울릉도(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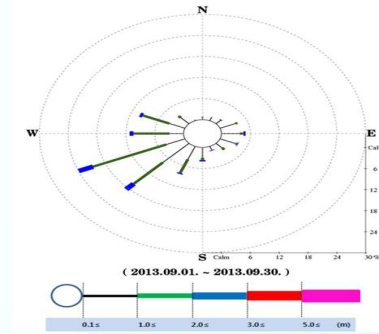
외연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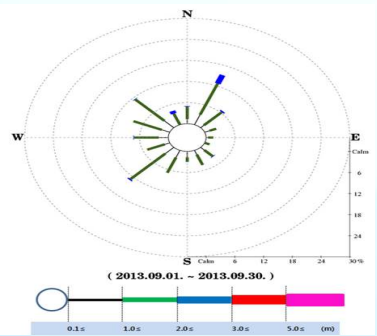
동해(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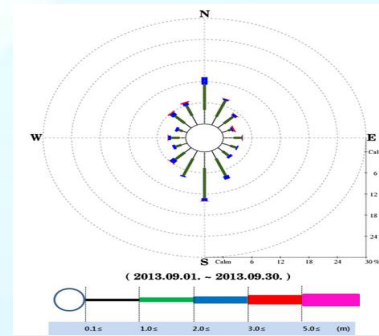
칠발도(서해남부면바다)



거제도(남해동부면바다)



거문도(남해서부면바다)



마라도(제주도면바다)

※ 포항(동해남부면바다) 자료 수집률 80% 이하로 통계자료 미생산

그림 4. 해양부이 관측 파향('13년 9월, 파향장미)

【참고자료 2】

▶ 9월의 주요 해양사고일지

일 시	선 명	피 해	사 고 원 인
'07.9.17. 22:25	2****호 (여수선적, 80톤, 저인망 어선, 승선원 11명, 강선, 선령 11년)	사망 2 실종 1	9.17.16:40 전남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에서 조업차 출항, 동일 22:25 전남 고흥군 탕건여 3마일 해상에서 원인미상 전복, 선체 침몰 ※ 기상: 남동풍, 12~16m/s, 파고 3~4m(황천 4급)
'08.9.27. 17:30	삼*호 (인천선적, 5.49톤, 어선, 승선원 2명, 목선, 선령 15년)	실종 2	인천 강화도 선수포구 앞 0.5마일 해상에서 가박중 원인미상 침몰(승선원 2명 실종) ※ 기상: 남서풍, 8~10m/s, 파고 1m
'09.9.16. 04:05	세*호 (마산선적, 9.77톤, 어선, 승선원 2명, FRP, 선령 14년)	사망 1	가덕도 인근해상에서 조업중, 인근을 항해중인 부산 선적 예부선과 충돌하여 전복
'10.9.7. 02:35	7****호 등 7척 (서귀포선적, 27톤, 연승어선, FRP)	전손7	제주 서귀포항 수협 위판장에서 7****호(27톤, 서귀포 선적, 연승, FRP) 등 7척이 원인미상 화재 발생
'10.9.25 01:55	6***호 (인천선적, 99톤, 어선, 승선원 7명, 강선, 선령 44년)	사망 2	인천 덕적도 북서방 6.7마일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예인, 9. 25. 01:55 덕적도 북서방 6.7마일 해상에서 침수, 침몰
'11.9.6 00:57	설*호 (부산선적, 여객선, 4,166톤, 승선원 130명)	인명피해 없음	여수시 삼산면 백도 북동방 7마일 해상에서 설봉호가 제주도로 항해중, 선미 화물창 원인미상 화재 발생
'13.9.18. 07:25	제31*호 (부산선적, 240톤, 어선, 승선원 37명)	인명피해 없음	독도 남동방 32해리 해상에서 항해중 갑판 외국인 선원 침실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 진화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구명벌 2개 이용 해상 탈출



'10. 9월 7척 화재



'09. 9월 세*호 전복



'11. 9월 대형 여객선 화재